

고지우·지원 “고향에서 다시 우승” 이정후 원맨쇼… ‘시즌 7·8호’ 담장 넘쳤다

6~9일 KLPGA 제13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고지원 타이틀 방어전… 고지우 통산 5승 도전

‘버디 폭격기’ 고지우와 ‘한라산 폭격기’ 고지원 자매가 고향 제주에서 KLPGA 2026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정상에 도전한다.

2026시즌 열여덟 번째 대회이자 KLPGA투어 하반기 첫 대회인 ‘제13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우승상금 1억8000만원)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서귀포시에 위치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파 72)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에도 KLPGA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승부가 예고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향 제주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고지원 (22·삼천리)이 첫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고지우는 지난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와 예쓰오일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데 이어 올 시즌 KLPGA 국내 개막전으로 4월에 열린 더시



KLPGA 2026제주삼다수 마스터스 포스터. 제주개발공사 제공

어나 오픈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통산 3승을 기록하고 있다. 5월 제1회 DB 위민스 챔피언십은 준우승, 지난주 열린 오로라월드챔피언십에선 공동 7위로 경기를 마무리해 대

회 2연패 달성에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다.

고지우는 “하반기 첫 대회를 고향인 제주도에서 치르고, 지난 2주 휴식기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몸 상태와 샷 컨디션을 모두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만큼 타이틀 방어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언니 고지우(24·삼천리)도 우승에 도전한다. 고지우는 KLPGA 투어 데뷔 첫 승을 2023년 맥콜·모나 옹평 오픈에서 올렸고, 2024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년 맥콜·모나 옹평 오픈에 이어 올해 다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우승컵을 가져오며 통산 4승을 기록 중이다.

또 제주출신으로 올 시즌 개막전인 리주란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임진영 (23·대방건설)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임진영은 지난 5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서 공동 7위에 오른 바 있다.

위영석기자 ywsit968@ihalla.com

텍사스전 2홈런 포함 3안타 3타점·2득점에 도루 맹활약 ‘시즌포기’ SF 3연패 끊어내

이정후 (27)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주전들이 대거 트레이드된 날 멀티 홈런을 치며 공·수·주에서 펄펄 날았다.

이정후는 4일 (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와 방문경기에서 솔로 홈런 두 방을 터뜨리는 등 4타수 3안타 1도루 3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06으로 끌어올렸다.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선발 출장한 이정후는 1회초 첫 타석 텍사스 선발 칼 칸트릴의 151km 낮은 직구에 루킹 삼진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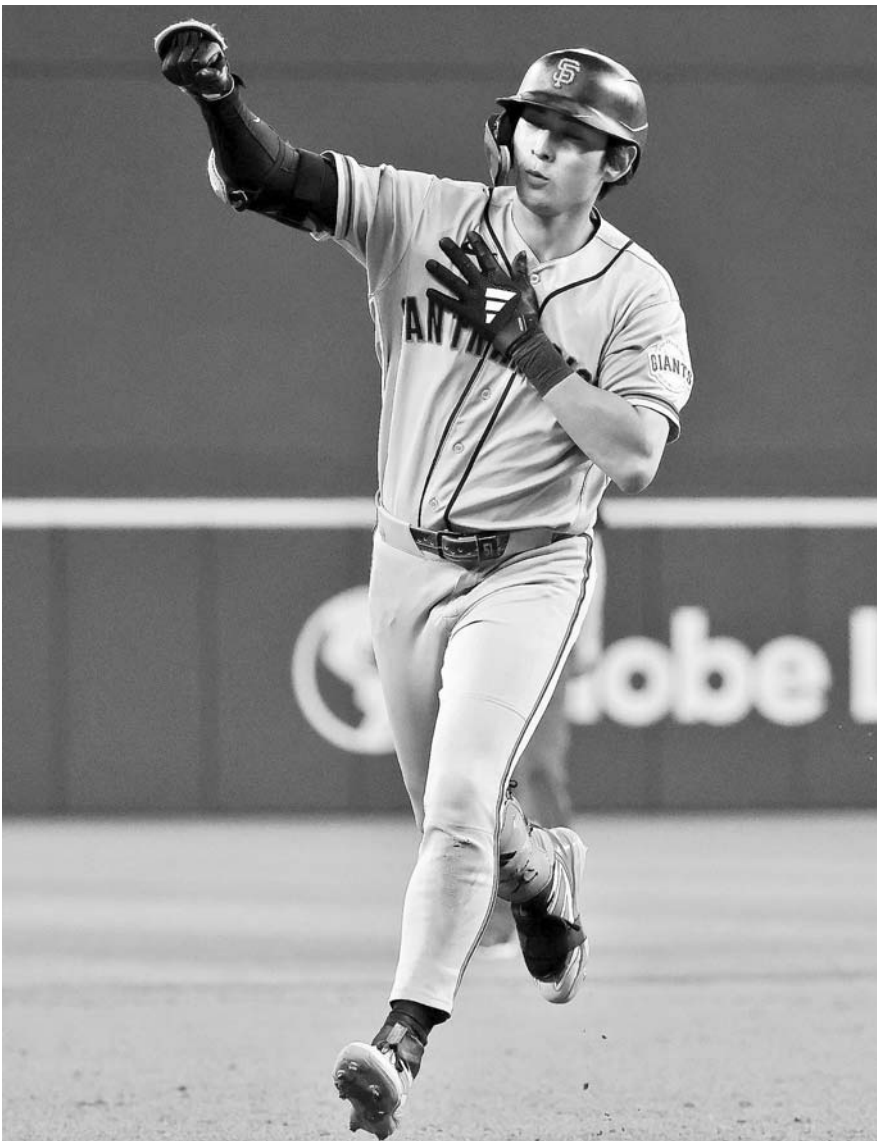
하지만 두 번째 타석부터는 방망이가 폭발했다.

샌프란시스코가 2-0으로 앞선 3회초 1사 후 타석에 나선 이정후는 칸트릴의 133.5km 스피리터가 가운데로 몰리자 벼락같이 배트를 돌렸다.

정통으로 맞은 공은 타구 속도 161.9km. 비거리 125m를 기록하며 우중간 펜스를 넘어갔다. 이정후의 시즌 7호 홈런이다.

이정후는 5회초 2사 후에는 날카로운 좌전안타를 치고 나간 뒤 곧바로 2루로 뛰어 시즌 8호 도루에 성공했다.

도루 과정에 포수 악송구로 3루까지 갔지만 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정후는 네 번째 타석에서도 화



이정후가 8회말 텍사스 레인저스를 상대로 시즌 8호 솔로 홈런을 친 후 베이스를 달리며 더그아웃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끈한 장타를 쏘아 올렸다.

8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텍사스 불펜투수 페이턴 그레이의 낮게 깔리는 139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역시 우중간 펜스를 직선 타구로 넘겼다.

이정후는 9회초 1사 만루에서도 타석에 나서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추가했다.

3안타를 혼자 몰아친 이정후는 우익수로도 여러 차례 호수비를 펼치며 5-1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샌프란시스코는 트레이드 마감 일인 이날 사이영상 출신 투수 로비 레이와 타격 1위 루이스 아라에스 등을 내보내며 시즌을 포기했으나 이정후의 ‘원맨쇼’에 힘입어 3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연합뉴스

임지환, 남중부 5종경기 한국新 갈아치워

전국시도대항육상대회 금메달
한라중 男1600m 제주 7초 단축

제주 육상 꿈나무 임지환(위미중3)이 10일 만에 남중부 5종경기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및 제34회 전국생활체육육상경기대회에서 제주선수단은 남중부 한국신기록을 비롯해 금메달 2개 등 6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제주 남중부 5종경기의 간판 임지환은 남중부 5종경기에서 100m (11초71, 709점), 포환던지기 (12m41, 631점), 110m허들 (15초80, 755점), 높이뛰기 (1m75, 610점), 800m (2분09초93, 1005점) 합계 3710점을 기록해 지난달 19일 회장배 제24회 전국중



10일만에 중등부 육상 5종경기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임지환(위미중).

고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자신의 한국신기록(3648점)을 10여 일만에 갈아치웠다.

여초부 높이뛰기 홍수빈(아라초)은 1m30을 뛰어넘어 김도린·송유빈(이상 강원 1m30) 보다 성공 시기에 앞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중부 3000m 경보 고동아(한라중)는 18분58초57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고 여중부 3000m 경보 문지원(한라중)도 15분46초99를 적

어내며 은빛 질주를 선보였다.

이밖에 남초부 높이뛰기 강민재(신제주초, 1m45)와 여초부 400m 제주 고서아·김도연·현재희(이상 한라초)·황지민(삼성초, 57초10)도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특히 한라중 김지민·우시형·장민준·이동빈은 남자 1600m제주 결승에서 3분38초37의 기록을 세워 지난 2014년 5월 제43회 인천 전국소년체전(제주선발, 3분46초02) 기록을 12년 만에 무려 7초 이상 단축했다. 한라중 최서은·진혜림·황유하·전효리는 여자 1600m제주 결승에서 4분10초07로 골인하며 지난해 4월 예전에서 열린 제54회 춘계전국육상대회(4분10초39) 자신들의 기록을 1년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이밖에 제34회 전국생활체육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남자부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총 15개), 여자부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총 16개) 등 모두 31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다. 위영석기자

제주 장애인펜싱 전국대회 메달 4개 획득

제주지역 장애인 펜싱이 전국대회에서 4개의 메달을 따내며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이 기대되고 있다.

4일 제주도장애인펜싱협회에 따르면 안진섭(제주장애인펜싱협회)은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세종시 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펜싱대회에서 사브르 개인전 2위, 플러레 개인전

3위에 오르며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안진섭은 4강에서 김권완(충남 장애인펜싱협회)를 15-8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임석현(대전 장애인협회)에게 12-15로 패해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이와 함께 김민석(제주장애인펜싱협회)도 플러레 개인전과 에페 개인전에서 각각 3위에 오르며 동메달



안진섭(왼쪽)·김민석, 제주장애인펜싱협회 제공

2개를 획득, 제주선수단은 어려운 훈련 환경 속에서도 4개의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위영석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일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광복절 특집 YMCA 야구단 1923(재)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일간극장 스페셜 11: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이 좋아!뉴스 스페셜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1:45 배베면(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블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어린 철학자 9:20 처음 배우는 시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왔다! 내 손 13:25 EBS 평생학교 16:55 수상한 방송국 17:2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Z 18:20 고향민국 19: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지명수배 13:50 KBS 뉴스특보 14:10 열린세상 14:50 어린이동화터너(재) 15:2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 15:4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30 설민하는 남자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히어로 인사이드(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감자 아일랜드 2	12:00 12 MBC 뉴스 12:25 얼마를 부탁해(재) 13:25 최고!나 호기심 딱지(재) 13:55 2사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45 위시켓 매직카드 13:00 보석아내 건강 수다(재) 14:00 뉴스브라보 15:30 지역이 좋고 국회가 답한다 16:00 로컬여행 오징어보고 17:20 또래들 17:50 어쩌다 어른 19:30 황금시간반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테마스페셜(재)	9:00 KCTV 9시 뉴스 10:00 헬린이 쿼츠팩트 12:30 네트워킹 전국발굴 13:40 여과 들고 등짝 스매싱 15:30 지역이 좋고 국회가 답한다 16:00 로컬여행 오징어보고 17:20 또래들 17:50 어쩌다 어른 19:30 황금시간반 20:00 책 읽어주는 나의 세계 21:30 인터뷰 제주를 말한다
제주CBS FM 93.3MHz 90.3MHz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지역 소릴 극복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여름특선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타임W 23: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8:00 경제플러스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뽀빠이로행진 23:15 토일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재)	18:05 테마여행 길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유무녀 길러(재) 22:20 플레어리스트 109 스페셜 22:30 라디오스타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원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50 내 남은 연애(재)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석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행가요 17:00 시사대거전 제주 17:30 정치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105.5MHz 105.9MHz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5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고원 교수(010-5233-6136)

36년 다양한 생각으로 고민이 많다. 48년 자녀문제로 애·경사가 있거나 소식이 오면 상념하라. 60년 음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운전은 자제. 72년 좋은 만남 또는 소개가 있다. 좋은 소식이 오면 외모에 신경을 것. 84년 자기 감정조절이 필요하며 재물에 이익이 따른다.

37년 갑연이설에 고민. 보증을 서면 불리하니 보류하라. 49년 집안의 어른으로 인한 근심과 우환이 있다. 병문안 또는 상가를 갈 일이 있다. 61년 동안, 협조자가 생긴다. 재물 이익이나 매출 증가. 73년 기대하지 않던 기쁨이 있고 약속이 이뤄진다. 85년 번덕스런 마음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면 좋은 일이 온다.

38년 음식 또는 친목을 함께하거나 손님을 초대할 일이 생긴다. 50년 재물 또는 인복이 약하니 보증이나 금전 거래는 정중히 거절하라. 62년 모든 일을 꼼꼼히 챙길 것. 교육분야업은 진전이 있다. 74년 생리리멘은 의욕 저하가 올 수 있다. 86년 한가지 일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

39년 마음을 달래줄 벗 또는 손님이 찾아온다. 음주는 적당히. 51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기니 이성적 교제는 신중. 63년 반가운 소식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있다. 75년 친목 또는 쇼팽으로 귀가가 늦어진다. 87년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거래는 신중하는 것이 좋다.

40년 자기의 역사는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 52년 소신껏 일을 추진하면 의외의 결과가 있다. 64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좌불안석이다. 자녀문제가 원인 이 될 수 있다. 76년 의욕,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88년 새로운 마음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라. 인기직업은 갈 곳이 많아진다.

41년 과격한 행동은 건강에 해가 되니 무리한 행동은 금물. 53년 집안어른에게 우환 또는 상가에 갈 일이 있다. 안부전화를 주거나 방문하라. 65년 대인관계는 사회생활의 원천. 친목 도모 필요. 77년 직업·취업으로 근심이 있고, 미혼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다. 89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고심이 있다.

42년 동업, 협력의 일이 생기고 기쁨이 온다. 54년 매매나 문서를 주고 받을 일이 찾아온다. 66년 의욕과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 원함. 78년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소신껏 추진하라. 자격증이나 공동사업이 원만. 90년 행복해지도록 자기최면 연출이 필요하다. 웃다보면 즐거움과 행복이 온다.

43년 자녀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한다. 먼저 자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 55년 직장, 스트레스, 사업장의 격정이 가정에서 눈 녹듯이 해결. 67년 지친 몸이 휴식을 원하나 오후에 약속이 잡힌다. 79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모암 시 귀가는 늦지마라. 91년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라.

44년 이동, 변동 이사, 창입 등 마무리에 바쁘다. 56년 부부간에 불화나 부모님께 근심이 생긴다. 찾아 보는 것도 좋다. 68년 집안일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 드려라. 내 힘이 필요하다. 80년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실수, 망신수 조심해야. 92년 결혼과 관계된 일이 상의가 있거나 형제간에 친목이 생기기도 한다.

45년 자유가 그리운데 갈 곳은 마땅치가 않다. 57년 나의 일로 고민할 것인가. 자녀문제로 고민 할 것인가. 69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오거나 소식을 접한다. 81년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93년 마음이 낙담한 자는 풍요롭다.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지 마라.

46년 모임이 있으면 핑크색 옷을 입으면 우러라 본다. 58년 이동 이사가 있거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간 연행 자체. 70년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정보력을 동원할 것. 82년 직장인은 회사발 창찬이 있고 실업자는 회소식이 있다. 94년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봉사할 일이 주어진다.

47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집투발 일이 생긴다. 59년 시덥 또는 처가에 갈 일이 생긴다. 다만 연행은 조심할 것. 71년 급하변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 83년 노력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이익이 있고 결과가 있다. 95년 밝음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법. 순리대로 행함이 좋은 하루.